

GGM 파업 갈등 끝날까...광주시·사측 ‘조정·중재안’ 수용

중재위, 시·사측에 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복지기금 확대 요구
노조에는 2교대 근무 적극 협력 등 요청...오늘 오전 입장 발표 예정

광주시와 GGM 사측이 노사민정협의회의 ‘조정·중재안’을 수용키로 해 GGM 노동조합(노조)의 행보가 주목된다.

광주시와 GGM은 2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권고한 ‘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조정·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정·중재안’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GGM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지난 1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와 8개 기관·단체 의견청취를 거쳐 전원 합의로 마련됐다.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노동·경영·전문가·시의회·행정분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중재안은 GGM 경영진과 노조 양측에게 ‘노사민정 대타협 GGM설립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GGM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8시간)’, ‘급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을 제안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과 노사상생협회의 역할 존중, 35만대 생산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광주시에게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지원비의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GGM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청취해 합리적으로 마련한 조정·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노사민정이 조정·중재특위를 만들어 60일 동안 애써 마련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GGM 경영진도, 노조도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생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시장은 “트럼프 관세정책 발효를 앞두고 폭풍전야인 자동차 업계와 1대 주주인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노조와 경영진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리라 믿는다”며 “이번 조정·중재가 계기가 돼 GGM이 세계 속의 GGM으로 성장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확산돼 광주 발전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GGM측도 조정·중재안을 받아 들었다.

GGM 측은 “이번 조정중재안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회사도 부담은 되지만, GGM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의 주체가 됐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정·중재안을 받아본 후 내부 검토를 거쳐 3일 오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GGM은 무노조·무파업을 골자로 한 노사상생협정서를 두고 노조와 사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교정 벚꽃 만개

2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교정 벚꽃 아래에서 시민들이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산불 대피 매뉴얼 마련...재난 취약계층 신속 대피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 394곳 지정

도, 5월15일까지 탐방로 통제

전남도가 산불 발생과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자 선제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2일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층 산불 대피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사회복지시설 605곳 중 산림인접 지역 500m 이내 위치한 시설 394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277곳, 장애인 거주시설 58곳, 노숙인 시설 7곳, 정신재활시설 6곳, 종합병원 7곳, 일반병원 15곳, 요양병원 24곳 등이다.

대피는 ‘산불 확산 예측도’를 토대로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사전에 지정된 임시 대피시설로 즉시 이동하도록 했다.

산불 확산 단계별로 현장 지휘관도 달라진다. 1단계(피해면적 10~50ha)와 2단계(50~100ha)는 시장·군수, 3단계(100ha 이상·24시간 연속)는 도지사 및 산림청장이다.

중증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톨릭병원 등으로 이송되며, 경증 환자는 99개 인근 지정 병원으로 이송된다.

입소자들은 종사자 등과 지정된 대피시설로 이동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의용소방대 등이 대피를 돕는다.

전남도는 또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을 운영하고 도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

도내 자연공원 중 산악형 국립공원(지리산·내장산·월출산·무등산) 4곳과 도립공원(조계산·천관산·두륜산·불갑산) 4곳이 통제된다. 다만 천관산도립공원을 제외한 3곳의 탐방로는 일부만 통제된다. 해당 구간은 각 공원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도립공원외에도 도내 모든 산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 해소 시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30%까지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난”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도민, 특히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먹는물 수질검사 ‘적합’ 판정

광주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시 수돗물에 대한 먹는물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정수장 2개소, 수도꼭지 150개소,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 8개소, 급수과정별 시설 21개소 등에 대해 진행했다.

수도법에 따라 지역 정수장(용연·덕남)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실시해 먹는물수질기준 전 항목(60개)에서 페놀을 포함한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등 45개 항목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득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0.020~0.022mg/L, 기준 0.1mg/L 이하) 등 나머지 항목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

정수장에서 가정수도꼭지까지 급수과정별 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미생물에 안전한 소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탁도 등 11개 검사 항목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했다.

정수경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은 “과학적인 수질검사와 검사결과와 투명한 공개로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전국 공공기관 최초 ‘리스크 관리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전남개발공사가 2일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리스크 관리 경영시스템’ (ISO 31000) 인증을 획득했다.

‘ISO 31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전남개발공사는 이번 인증으로 CEO의 리스크 관리의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경영매뉴얼, 리

스크 관리조직 운영 및 대응 프로세스 구축 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지방 공기기업에도 시장 및 사업 환경 변화 대응 능력과 재무 건전성 관리, 재난 및 안전 관리, 윤리경영과 규범 준수 등 복합 리스크 관리 체계 능력을 국제 기준으로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개발공사는 전남 균형발전을 목표로 부동

산 경기 침체와 건설비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공사는 최근 10년 연속 흑자 달성에 힘입어 전남도에 100억원을 배당하는가 하면, 부채비율 26%, 금융부채비율은 14% 등 지방 공기기업 중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진도군 의회가 되겠습니다!



진도군의회 유튜브

진도군의회 다양한 의정활동을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진도군의회 검색 후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제305회 임시회 촉구 건의



국민의 뜻! 국민의 바람!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 진도군의회



진도군의회